

2021 추석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같 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 표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가족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딤후 1:12~17 다 같 이

-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설 교 내가 감사함은 인 도 자

본래 추석은 추수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기쁨도 나누면서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성도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에게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노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요 감사의 조건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소명에 감사하고, 직분에 감사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그의 부족함을 친히 채워주셨고, 능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설령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일도 맡겨주시고 그에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2.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

바울의 두 번째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의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미 보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러워 직분을 맡기가 꺼려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를 믿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이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 죄인의 괴수였고 비방자요 박해자며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음을 보임으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에게 모범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실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타인들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 때문에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참으로 유능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유능한 직분자가 되어 헌신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부족하여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1. 사명과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소서.
2. 일평생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2021

추석가정에배

